

결론 및 제언

공예프로젝트 만들기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4Ps: 사람(People), 과정(Process), 제품(Product) 및 장소(Place)를 포함한 4가지 차원의 창의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1) 지역 장인들은 창의적인 디자인 사고 능력을 키워야 한다. 2) 창의적인 과정은 생산적인 창조로 이어질 것이다. 3) 창의적인 제품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4) 창의적인 공간과 장소는 모든 연령층이 창의적인 공예와 민속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 불확실성의 시기에 공예 창작품의 이면에 담긴 영감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일반 고객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각 도시마다 그 발전 과정과 적응 능력이 다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자체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며, 이는 수코타이 창의도시네트워크(UCCN)의 미션과도 동일하다.

위티야 피통나푸(Witiya Pittungnapoo)

(UCCN 공예 및 민속예술 부문 수코타이 공동 지역 담당자)

퍼두커, 미국

퍼두커의 마켓 하우스 극장: 공연은 계속되어야 한다



미국의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퍼두커에는, 거의 60년간 코미디, 뮤지컬, 생각을 일깨우는 공연들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며 즐거움을 제공해 온 지역 커뮤니티 극장이 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이 마켓하우스 극장은 1963년에 시작되었다. 이는 퍼두커의 역사적인 건축 보물 중 하나인 1905 마켓하우스를 보존하기 위해, 극장을 사랑하는 시립미화위원회 회원 8명이 노력한 결과였다. 같은 해에 마켓 하우스 배우들의 두 번째 연극이 마켓 하우스에서 제작되었으며 그 이후로 이 곳은 고향이라고 불렸다.

역사적인 도심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1905년 마켓 하우스는 상업적 장소에서 문화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예이저(Yeiser) 아트센터, 마켓하우스 박물관, 그리고 마켓하우스 극장이 자리잡고 있다. 이 극장은 도시

개발에 있어서 문화와 창의성을 통합하여 역사적으로 복원한 대표 작품으로 끊임없이 일컬어지고 있다. 1996년에 세 개의 건물을 추가로 인수함으로써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엔터테인먼트와 "직접 참여하는" 예술적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확대되었다. 현재는 11개의 역사적인 건물을 운영하고 있으며, 춤/음악 수업, 리허설, 모든 기능을 갖춘 무대 상점, 의상 상점, 다목적 공간, 그리고 객원 감독이나 방문객을 위한 숙소 등으로 사용할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다.

마켓 하우스 극장의 목표는 정기적으로 예술적 기회들을 제공하고, 교육이나 훈련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가치 있는 삶의 교훈을 가르치는 매체로서 예술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연극 예술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4개 주의 41개 학교에서 매년 수만 명의 어른들과 어린이들에게 다가간다.



라이브 극장은 어려운 주제들을 탐구하고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처하거나 그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한 장소이다. 수년간, 이 라이브 극장은 시골과 도시의 지역사회 모두에게 인기를 끌면서, 논란이 많은 프로그램을 재치 있게 퍼두커에 정착시켰다. 어두운 극장의 친근한 환경은 관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삶의 상황이나 상반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만든다.

라이브 공연이 발전함에 따라 즉흥 연극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극장의 미래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무언가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다. 극장의 미래는 사람들이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다"고 마이클 코크란(Michael Cochran) 전무이사는 말한다. 두 가지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배우들과 함께 참여해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의 이야기를 변형해보는 유아 프로그램인 플레이타임과, 관객들이 말 그대로 몰입해서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인 살인 미스터리 디너/극장이다.

라이브 커뮤니티 극장에 대한 마켓 하우스 극장의 철학은 "공연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제한조치가 발표되었을 때, 극장은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대처했다. 그리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친숙한 공간이라는 점 때문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그들은 메인 극장의 많은 좌석들을 없애고 훨씬 더 작은 규모의 관객들에게 공연을 했다. 티켓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영화 제작진을 고용하여 BroadwayOnDemand.com에서 스트리밍 쇼를 제공했다. 그 결과, 친구와 가족들의 공연을 볼 기회가 없었던 전국의 사람들이 티켓을 구매하고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었다.

극장은 이미 야외 마당 공연과 이벤트 공간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 프로젝트를 예정보다 빨리 시작하게 되었다. 건축 및 공학 조사에 따르면 비용이 2020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영진은 실현 가능한 다년간 계획으로 수정하여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2020년에 플레이타임 시리즈로 4개의 작품과 16번의 공연이 개최되었다. 현재 2차년도인 2021년에도 이러한 추세를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다. 완벽하게 제작된 가족 쇼와 성인 대상 연극, 그리고 3개의 댄스 쇼케이스 무대가 모두 극장 마당에서 선보였다.



극장의 경영진은 뛰어난 프로그램과 책임 있는 재무 처리 실력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와 신뢰와 존경을 받아왔다. "성공적인 공연 예술 프로젝트는 10년이 걸린다. 우리가 지금 무대에서 하는 것은 1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다. 필요하다면 천천히 작은 걸음을 내딛되 사명은 유지하라,"고 코크란은 조언한다.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창의도시네트워크는 우리 모두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창의적 잠재력을 높이고, 노하우를 교환하며,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한다. 극장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창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일상적인 운영을 관장하고 팀을 이끌고 있는 전국의 극장 경영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가 극장의 사명을 지속하기 위해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 지 나눌 수 있다."고 코크란은 말한다. 협력은 서로에게 유익하다. 퍼두커는 수년간 수많은 극작가와 감독들을 초청해 왔으며, 코크란은비영리 경영에 대한 우수 사례들을 지역과 전국에 발표해 왔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준다."

퍼두커의 문화 자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www.paducah.travel를 방문하세요.

로즈매리 스틸(Rosemarie Steele)

(퍼두커 창의 도시)

가브로보, 불가리아

"미래를 위한 공예" 프로젝트: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박물관으로 꼽히는 야외 박물관의 장인들을 지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위기 초기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하나인 불가리아의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부과된 제한조치로 인한 타격을 가장 크게 받으며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국가 및 지방 정부는 문화부문을 긴급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우선순위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러한 지원은 또한 불가리아의 민속 단지와 박물관들의 전통 공예 장인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

특히 박물관이 문을 닫았던 2020년 3월, 4월, 5월에는 공예가들이 공예작업과 기술 연마를 포기해야 했으므로 무형문화유산이 사라질 커다란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 당국은 문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었다.

실행된 조치들 중에는 전체 노동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로서, 세금 감면, 고용 보조, 실업자를 위한 혜택 등의 지원들이 포함되었다. 한편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검증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전통 공예 전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도 시행되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민속 복합단지와 야외 박물관을 가진 불가리아의 몇몇 지방 자치단체(입법권 및 집행 권한을 가진 지역 기관)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전통 공예 장인들에 대한 도움과 지원을 문화부에 호소했다. 대부분의 장인들은 소규모의 가족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공예를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미래를 위한 공예" 프로젝트가